

# atelier coeln wien

##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이상적인 사회와 그 대립적 이미지

**2016년 5월 3일부터 6월 13일**

**일몰부터 일출까지**

**헬덴토어** (호프부르크 외문), 부르크 링  
**미카엘라토어** (호프부르크 내문), 미카엘라플라츠  
**비엔나, 오스트리아**

빈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특별한 두 성문에는 밤마다 래스터 문양과 가시 돋친 철조망이 덧비추어진다. 링스트라쎄에 위치한 호프부르크 궁전의 두 정문인 헬덴토어(영웅의 문)와 이카엘라토어(미카엘의 문)이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장소이다. 40여 일 동안 진행될 이 작업은 래스터, 가시 돋친 철조망, 그리고 장엄한 건축물의 조합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자아내고 그와 함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atelier coeln wien

## 빅토리아 콜론

빛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연계시키는 매개체이다. 그 빛은 항상 활동한다. 활동이라 함은 살아 있음이요, 활동이 없음은 죽음이라 하겠다. 빛은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 우리의 상상의 경계조차도.

내가 빛으로 작업하는 이유는 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흔히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체계들을 뚫고, 행위를 통해 새로운 시발점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이것은 자유를 의미한다. 아마도 자유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善)이다. 우린 종종 이 점에 주의를 두지 않으며 자유를 당연시한다. 하지만 역사는 일반 대중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헬덴토어에서 내가 평화주의 활동가 베르타 본 슈트너를 기념하는 작업을 한 것이 2014년이다. 그 후, 지난 이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으며 우리는 우리가 명명할 수 없는 어떤 문턱에 도달한 듯 느껴진다. 지금 우리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는가?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자유는 선거의 자유, 의지 혹은 생각의 자유이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대 예술에서의 자유이고, 행위의 자유이다. “자유여부는 어떤 행위가 표현되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자유의 광장을 국가가 얼마만큼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나 아렌트-

## 케르스틴 제쎄

헬덴토어와 미카엘라토어의 빛의 중재 작업을 통해 빅토리아 콜론은 기념비적이며 사회 반영적인 새로운 시사의 장소를 만들어 냈다.

두 성문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요소를 반영한다. 이 성문들은 열려 사람을 지나가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닫힐 수도 있다. 이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이곳을 지나며 우리는 모두 아무 준비 없이 ‘현실이란 부서지기 쉬운 것’이

# atelier coeln wien

란 것을 상기하게 된다.

정확하게 빛으로 형상화된 작업의 두 중심 요소는 래스터와 철조망이다. 철조망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함축성을 대표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울타리, 장애물 그리고 차단물 따위를 떠올리게 한다. 처음에는 목초지의 울타리로써 만들어졌으나 비인간적인 정권이 만든 '경계'의 상징이 된 것이다. 북미의 인디언들은 비틀어진 철사와 그 날카로운 가시를 "악마의 끈"이라 불렀다.

래스터 문양은 종종 예술작품에서 정형성, 도식성, 비인간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나타난다. 그것은 상/위 계층체계에 반하는 시스템이다.

Sigmar Polke(독일 화가이자 사진작가)는 그 자신의 작품에 있어 래스터 문양을 질서를 해체하고 퍼트리하는 방식이자 구조라고 정의했다. 래스터로 구조를 깨트리거나 나눔으로써 정형의 반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겠다. 빅토리아 콜른의 작품에 있어서 래스터 시스템의 파열은 정형화된 사고를 깨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밝고 분산된 래스터는 사회에 관한 비판으로 읽혀질 수 있겠다.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굳어 있는가, 아니면 열려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우리 스스로의 경계선을 긋고 있으며, 어디로 우리의 공간을 확장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경계들이 마주치며 공간이 초월 되고 있는가? 누가 다른 이에 의해 규정될 그 누구를 규정하는가?

빅토리아 콜른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담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소로 오스트리아 역사에서 아주 모순되면서도 비엔나 중심에 위치한 곳을 주의 깊게 선택하였다.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 각자가 가진 책임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다.

# atelier coeln wien

## 하이데마리 울

철조망은 유럽인들의 시각적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한 상징이다. 그것은 캠프의 세상(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중에 수용소를 의미한다)과 1945년 이후 철의 장막, 냉전의 시대를 상징한다. 1989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이미지로 대표되면서 새로운 기원의 의미를 가진다. 그로 인하여 유럽의 모든 국경이 무너지는 시대가 가까운 듯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경의 강화는 유럽이 꿈꾸는 이상적 비전의 종결을 뜻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일어났던 희열감 대신, 멸망의 두려움과 위협적인 시나리오가 새로운 국경 안의 유럽을 건설하고 있다. 어떻게 유럽의 유토피아적 잠재력, 열린 시야, 민주주의, 정의사회 체제가 새로운 시작을 불러일으키는 자원으로 재가동될 수 있겠는가?

## 유럽의 기억 속의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비엔나호프부그의 두 성문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두 정점을 찍는다. 미카엘라토어의 네 헤라클레스 상은 영웅적으로 황제를 미화하고자 궁정 조각가 로렌조 마르티넬리에 의해 조각되었다. 그 이면에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부인과 자식을 죽인 속죄를 위해 그의 영웅적 과업에 임하였다.

2012년 헬덴토어에서는 1935년에 만들어진 두 문서가 발견된다. 하나는 이 기념비의 설계자였던 빌헬름 프라스의 나치를 칭송하는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되는 문서로 프라스의 조수였던 알폰스 리델의 글이다.

수십 년 동안 한 캡슐이 이상향과 반 이상향의 글을 보호해 온 것이다.

# atelier coeln wien

## 빅토리아 콜론

비엔나에서 나고 자라 활동하는 예술가로, 공공장소에 다면적인 빛을 가함으로써 작업을 만들고 있다. 그녀가 아틀리에 콜론 팀과 행하는 작업들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인 시사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직접 연결시킴으로서, 관객이 자신의 위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 케르스틴 제쎄

비엔나 대학교와 베를린 자유 대학교에서 예술사를 공부했으며 어씨스턴트 큐레이터를 거쳐 현재 비엔나 벨베데레 박물관 20세기 컬렉션에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 하이데마리 울

역사학자인 하이데마리 울은 그라츠 대학교와 비엔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오스트리아 과학학회 산하 IKT 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오스트리아 국방체육부 소속의 군 역사 기념물 위원회의 멤버이자 오스트리아 역사의 집의 과학자문회 부회장이다.

[www.oeaw.ac.at/ikt](http://www.oeaw.ac.at/ikt)

## 아틀리에 콜론

아틀리에 콜론은 2015년 초 예술적 연구를 확장하고 국가 간 그리고 학문 영역 간의 관계를 예술을 통해 강화하고자 설립되었다. 아틀리에 콜론에 주 초점은 고대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사적지, 그리고 관리, 발전, 협력의 장소인 도심과 지방의 공공장소에 여러 매체를 통해 빛과 색으로 재창조된 장소를 만들기 위해 빛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www.coeln.at](http://www.coeln.at)